

## 학생 감동의 대학 경영 시대

**요** 즘 대학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열린 교육이다. 이 말이 대학가에서 회자된 것은 불과 몇 년 전 일이지만, 이제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대학 개혁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정보화 또는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교육체제가 열린 교육을 통해서만 그 목적이 구현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가 사회 발전의 새로운 요소로 부각되는 오늘의 시대에 종래의 권위적이고 상아탑적인 교육체제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욱이 대학 진학 인구의 감소라는 발빠른 환경변화와 다양한 학습자료 및 교육매체 시스템의 개발은 지금까지의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열린 교육의 요점은 무엇보다 교육의 중심축이 교육 공급자로부터 교육 수요자로 이동하는 데 있다. 이제는 학생이 대학과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들의 지적 요구와 관심에 따라 교육내용이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교육 수요자 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대학은 교육환경과 교육행정 및 교육내용을 과감하게 개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언필칭 대학 마케팅시대가 도래되었다 하겠다.

그것은 먼저 대학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만족감과 편리함을 주어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자유롭게 캠퍼스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둘째는 학사행정의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 규제 위주의 종래 대학 행정의 관행을 혁신하여 철저하게 학생 입장에 선 서비스 행정체제로 혁신해야 한다. 셋째는 교육내용, 즉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일이다. 이 세번째의 일이야말로 열린 교육을 실현하는 데 관건이라 하겠다. 앞으로 개발해야 할 사이버 강의와 교육매체를 통한 대학의 신강의 체제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열린 교육의 장에서 교육의 중심은 당연히 학생이다. 지금까지는 교수가 교육의 주체가



백재대 총장 박강수

되어 모든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교수 중심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학생의 능력과 재능, 소질과 관심 등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은 피동적으로 수업에 끌려올 수밖에 없었고, 학습 부진의 책임은 학생의 지능이나 태도에 돌려졌다.

그러나 열린 교육에서는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는 학생의 선택이 존중되고 학생의 만족도가 우선된다. 교수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업방법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학습을 주도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선진국가의 과학기술을 모방·수용하여 양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급급했다. 이제는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식집약적 산업구조 속에서 새로운 고급 정보와 지식을 창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구태의연한 칠판교육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교육도 열린 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은 단순한 지식의 전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자아개발과 자아실현에 있는 것이다. 질 높은 대학이 질 높은 국가를 유지 관리한다. 부강한 국가는 견실한 대학이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에의 더 많은 투자 유인정책은 다음 대통령의 당선요인 중에 하나임을 강조한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속박과 규제의 공간이 아닌 내적 가치를 갖춘 자유와 질서의 공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대학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학이 된다. 미래의 대학은 학생 감동의 경영체제, 즉 열린 교육이 아니고서는 대학의 생존력을 잃게 된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박사가 30년 후면 대학이 없다고 설파하고 있음에 우리 대학인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 대학은 하염없이 변화해야 산다. ■